



곽병찬  
한겨레신문 편집 부국장

# 주홍글씨

할머니, 혹시 권원식씨네 아세요?

읍내 시장 뒤에 살던 사람인데.

아, 그 딸 부잣집. 아마 딸이 9명이라고 했나. 그 앞에 김씨가 누군가 있는데 그 집은 아들만 7명이었지. 그래 둘이 만나면 권씨가 김씨에게 “자네가 아들 다 낳아버렸으니 딸은 우리 차지이지” 투덜대곤 했대지 아마.

“할머니, 그럼 시장 안에 살던 곽씨네는 아세요?”

곽씨? 고개를 한 번 갸웃거린 할머니는 곧 이렇게 말을 잇는다. “시장 한 가운데 큰 전을 띄고 살던 사람? 오래 전에 해미를 찢지 아마. 근데 왜 물어.”

‘그 집안 식구들이거든요’ 라는 말이 목까지 차 올라왔지만 꼭 눌렀다. 좀 더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그래, 곽씨네는 남매가 있었지. 그 사람 참 잘 살았는데... 할머니는 이 한마디만 던지고 더 이상 입을 다물었다.

“저희가 바로 곽씨네 손자들입니다. 이 분이 제 어머니이시고.”

“선생이 아들이라고?”

“아니요, 손자입니다. 이 분이 어머니이시니까 곽씨네 며느리고요.”

할머니는 찬찬히 어머니를 뜯어보셨다.

“그리고 보니 낮이 많이 익네.”

이 말을 두어 번 더 반복한 할머니는

“그래 그동안 어디 가서 사셨대?”

지금부터 40년 전의 일이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따라 형님과 누이동생만 데리고 타지로 떠났다. 그로부터 3년 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고향을 등지고 서울로 떠나셨다. 2년 뒤 나는 서울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다시 함께 살게 됐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된 이유는 기울어져 가는 가세 탓이었다. 40여년 만에야 4형제가 함께 고향을 찾은 것도 떠날 때의 아픈 기억 때문일 것이다. 지금은 그때의 아픈 상처도 아물고 오히려 눈물겨울 정도로 삼삼한 기억으로 바뀌긴 했지만.

할머니의 선명한 기억 앞에서 우리는 탄성을 질렀다. 뒤란 장독대에 놓여있는 아주 오래된 된장독을 보는 느낌이었다. 지금까지 나는 내 고향은 해미라고 몇몇이 말했다. 그러나 내가 동향임을 입증해줄 사람은 없었

다. 특히 나의 경우 초등 2년 때 떠났으니 누가 동향임을 증언하라. 기억이 없다면, 부부건 형제건 남남이다. 나와 내 가족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는 고향이라면 그건 서류상의 고향일 뿐이다.

이때 잠시 서늘한 바람이 내 가슴을 지나쳤다. 기억되고 있다는 것이 주는 따듯한 귀속감의 정반대편에 있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이 주는 두려움' 그것이였다. 나와 내 가족의 이향은 저렇게 기억되고 있구나. 야반도주는 아니라 하더라도 쇠락과 쓸쓸한 퇴장이 할머니의 기억 속에 그렇게 포함돼 있구나. 그리고 어쩌면 지금은 세상을 떠난 내 고모님의 비련도 거기에 남아있을지 모를 일이고. 할머니는 읍내에서 제법 떨어진 황락리에 살고 있다했다. 거기엔 고모님의 파트너가 되셨던 분의 집이 지금도 있다.

촌락 공동체는 바로 그런 기억에 의해 규율되기도 했다. 앞집 옆집 손가락이 몇 개나 되는지, 아침 저녁 상에 반찬으로 무엇이 올랐는지 까지 서로 알고 있으니, 마을 사람은 함부로 처신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지금은 사라진 '동네 창피하게스리' 말은 그 반증이다. 국가도 이런 기억을 통해 개인을 통제한다. 생활기록부, 병역기록부, 전과기록 등 공문서 형태로 기억을 문서화하고 있는 게 다를 뿐이다.

구수한 된장내 나는 고향의 기억이 갑자기 살벌한 전과기록으로 넘어가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요즘 나라를 벌컥 뒤집어 놓은 국가교육정보행정망(NEIS) 때문이다.

자고로 학생의 신상 정보는 학생 지도에만 이용해야 한다. 그러자면 지도하는 선생님만

알고 있어야 한다. 학생의 신상정보는 학교 담장을 넘어가선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NEIS는 초·중·고교 시절 학생의 모든 정보를 국가 통제하의 컴퓨터가 관리한다. 아이의 성장환경, 병력, 자주 복용한 약물, 징계 및 상담 내용 등 학생 자신은 물론 부모로서도 도저히 드러내고 싶지 않은 정보들이 거기에 포함돼 있었다. 이 정보는 대를 이어 가며 전산망에 남아 있도록 돼 있었다.

품종개량소란 곳이 있다. 그곳에선 소나 돼지의 발육상태를 낱알이 추적해 관련 정보를 기록해놓는다. 그곳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우량종자만을 남기고 열등종자는 도태시킨다. 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기록된 과거만 존재한다. 소나 돼지는 오로지 기록에 의해 판단되고, 폐기 여부도 결정된다. NEIS에 담긴 정보도 마찬가지로 이용될 수 있다.

설사 노예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겐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과 아픔과 상처가 있다. 간질환자라 하더라도 발작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병이 알려지길 원치 않는다. 중·고등학교 때 싸움도 하고 징계도 받고 가출도 했던 일들을 왜 국가가 기록하고 관리하려 하는가. 부모님 없이 자랐다는 사실을 왜 국가가 굳이 알고있어야 하나. 이런 정보는 개인의 인격과 관련된 것이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것들이다.

물론 전교조의 적극적인 문제제기로 독소조항은 많이 빠졌다. 그러나 아름다운 장미엔 가시가 있고, 아름다운 색깔의 버섯엔 여지없이 맹독이 있다. 효율성에는 언제나 인권 유린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PPPK**